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음 8월 29일) 제21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명박 징역 15년 다스 실소유 인정

1심서 벌금 130억원 · 추징금 82여억원도 함께
재판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불신 · 실망 안겨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에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별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여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송효철 기자



지난 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는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두봉 노인회전북연합회장, 노인단체, 유공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도는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봉 노인회전북연합회장, 노인단체, 유공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기념행사는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대한노인회 등 노인관련단체 관계자, 노인복지유공 수상자와 내내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평소 회생과 봉사정신을 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전북도, 노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등 진행

탕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공로가 큰 유공자 44명을 대상으로 도지사, 도의회 의장, 노인회 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식전축하행사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배운 이코디언, 색소폰 연주와 장구 등 공연으로 기념식을 더욱 빛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갈수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경로당 등에서 건강관리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며, 어르

신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회활동 활성화와 소득보장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의 날(10.2)’은 어르신들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1)’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지난 5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전국 · 장애인체전 성공개최 기원

도, 종합상황실 현판식

전북도는 지난 5일 익산 종합운동장(종합상황실)에서 2018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체전의 주요 협업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환경정비부, 복지여성보건의료부, 도시기반시설부, 소방안전부, 공식행사지원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승일

도 행정부지사는 “다가오는 2018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성공체전으로 이끄는 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업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체전이 개최되는 매일매일 분야별 현장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체전이 끝날 때까지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한글날로 10월 9일자 신문 쉽니다.”

5년새 아동 재학대 6821건 발생

김광수 의원 “피해 아동 사후관리 이뤄지지 않아
작년 22억원 예산 투입됐음에도 급증 대책 시급”

지난 2016년 친부와 계모로부터 지속된 아동학대를 받다 사망한 일명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 재학대도 최근 5년간 6,821건이 발생하고 2배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는데, 발생건수를 보면 △2013년 980건 △2014년 1,027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1,9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 재학대에 관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5년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6,821건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6,225건으로 91.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44(3.6%), 부모의 동거인 104(1.5%), 아동복지시설 101건(1.5%)

순이었다. 아동 재학대가 발생하는 감소 역시 피해아동 가정 내가 6,322건(92.7%)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10건(1.6%), 학교·유치원 22건(0.3%), 어린이집 17건(0.2%)이었다. 아동재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157건으로 5년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3년 248건에서 2017년 4,656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3년 308건에서 2017년 5,652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

소리가 높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학대자의 91.3%가 부모이고, 재학대 발생 감소 역시 가정 내가 92.7%인 점은 결국 아동학대로 적발된 부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2017년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근절되기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먹사는 미래다!

축성 565주년

제45회 **고창·모양성제**

2018. 10. 17(수) ~ 21일(일) 5일간 **모양성(고창읍성)**

The 45th Gochang Moyangseong Festival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2018 유망축제 선정

주관 (사)고창모양성보존회 후원

주최 NH농협고창군지부, 고창군청, NH농협은행, 웰파크시티, 고창부민회, 한국농어촌공사고창지사, 한수원